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 보육 실태 및 계획과 관련하여 -

Infa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father's participation of child - rearing
- in relation with current state and future plan of child-care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진흥기획단

강기숙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한유미*

Planning & Public Relations,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Kang, Gi-Soo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

Associate Professor : Han, You-M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ant's cognitive and motor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father's participation of child-rearing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child-care related variables. A total of 112 infants aged from 11.5 months to 12.5 months old were tested by Korean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II; in addition,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five areas of parenting knowledge, mothers attained the highest score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lowest on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Secon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were related to their income and the time to start child-care center. Third, the development of infant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The implications for designing child-care policy and parent education program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영아발달(infant development),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아버지의 양육참여(father's participation of child-rearing, infant care)

I. 서론

영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인간발달의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성인이 어떠한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영아가 경험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최근 영아기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Wittmer & Petersen, 2005). 또한 과거에는 영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주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하여 이들이 성장, 발달하는 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 2009)에 의하면, 0~2세 영아의 30%가 기관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그리고 10%가 개인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의 영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보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아기의 보육은 유아기의

* 주저자·교신저자 : 한유미 (E-mail : hanyum@hoseo.edu)

보육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의 타인양육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곤 한다(Adams 등, 2007). 예를 들어, Belsky(1988)는 만 12개월 이전에 주당 2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받으면 이후 유아기에 회피-불안정한 애착의 발달과 학령전기 및 초기 학령기에 공격성, 비동조성, 회피 등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장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유미, 2010)에서도 시설장과 어머니 모두 만 3세 이상 유아에게는 질 높은 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만 12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95%와 시설장의 89%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여 영아보육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아보육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주요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영아보육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를 위한 보육정책은 2000년대 초반 영아전담시설의 확충으로 시작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가정보육교사 파견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도(0~1세 차상위 이하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양한 영아보육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는 부모, 보육시설 종사자, 정책 입안자 등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장들은 가정보육교사 파견 서비스를 반대하고 보육시설 지원 위주의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연합뉴스, 2009.04.07), 부모들은 양육수당 도입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한유미, 2009). 따라서 다양한 영아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비교하고 효율적인 영아보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특히 출생 후 12개월까지 초기 영아기의 보육실태 및 시설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나 계획, 그리고 이러한 보육관련 변인과 영아발달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생에서 발달 속도가 가장 급속한 영아기 초기에 양육자는 영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양육지식이란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의미하는데(Larsen & Juhasz, 1985), 어머니가 자녀의 능력이나 발달수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육지식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홍순옥·김성혜, 2009) 및 적절한 양육환경(조복희·윤형주, 2004)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양안나, 1990; 이경하, 2009; Grusec & Goodnow, 2005; Leaper,

2002; Miller, 1998). 역으로 영아발달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은 영아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현실과 이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선행연구들은 양육지식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선미·장선미, 2009), 양육스트레스(김영주·송연숙, 2007),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홍순옥·김성혜, 2008)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수적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학력이나 연령, 취업과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근영 외, 2004; 이영환·오미연, 2006; 조복희·윤형주, 2004; 홍순옥·김성혜, 2009; Benasich & Brooks-Gunn, 1996). 그러나 양육지식은 학교교육 등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실제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습득될 수 있기 때문에(Goodnow, 1984)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타아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정계숙·양안나, 1990)와 타아기간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정계숙·박성미, 1991)가 공존한다. 그러나 양육지식에는 이상적인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므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어머니가 현재 영아에게 제공한 보육실태 및 향후 보육계획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타인이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또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과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계획한 연령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취업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 역할 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에까지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즉, 과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바르게 지도 감독하는 아버지 역할에서 나아가 오늘날에는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자녀와 친근하게 상호작용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된 것이다(이숙현, 2002).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황순영·정영숙·우수경, 2005), 성역할과 역할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최경순·정현희, 1995; 정현희·최경순, 1995), 정서조절(임지운 등, 2009), 또래수용도(황영미·문혁준, 2006) 등 주로 유아기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머니만의 책임으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양육 개념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해야 한다는 양육분담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가

정 내의 양육분담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2005)의 조사 결과 자녀 돌보기를 부인이 전담하는 경우가 65%이며, 부부가 함께 분담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고, 맞벌이 가족의 경우도 부인 전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기에 비해 영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더욱 저조한 편이며, 양육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과거보다 증가는 했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보이고 양육보다는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며 실제 자녀를 돌보는 활동에 대한 참여는 낮다는 것이다(장미나, 1994). 또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과 자녀의 성별 및 출생순위 등의 변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이수재·이영환, 2007; 황순영 등, 2005),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영아가 양육 또는 보육되고 있는 맥락에 따라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완정·현온강·최혜란(1997)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은 아동의 성이나 연령 등 아동관련 변인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족배경 변인이었으며, 아버지의 자녀양육도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보육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아주는 보육시설에 대해 안심하고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어머니 외에 자녀의 양육에 주된 책임을 지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는 양육에 덜 참여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역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현재의 보육실태를 결정하거나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시기를 계획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타인이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떻게 다른지, 또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현재의 보육실태 및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 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영아가 영아 개인에게는 발달 속도가 가장 급속한 시기이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장 집중적인 양육이 요구되는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미흡한 동시에 타인양육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시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만 12개월 영아에 초점을 두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뿐 아니라 현재의 보육실태 및 보육시설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따라 영아의 인지발달 및 동작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일반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영아의 발달이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육지식 제공과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 정책 수립 및 부모지원 서비스 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비분석으로 연구대상 만 12개월 영아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영아의 보육실태 및 계획을 어머니가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와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주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을 부양육자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양육(조부모, 베이비시터, 보육시설)을 하는 경우 등의 현재의 보육실태와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계획한 연령으로 측정하여 각기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영아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2개월 영아와 이들의 어머니 등 총 112쌍의 모-자녀이다. 본 연구대상 영아의 연령이 만 11.5개월부터 만 12.5개월의 매우 제한된 연령 범위인데다가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섭외하였다. 첫째, 주변인들에게 연구의 취지 등을 설명을 해준 후 관련 대상을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둘째, 인터넷의 임신·육아관련 카페에 연구의 취지가 설명된 안내서를 올려서 원하는 사람이 직접 메일을 보내오도록 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영아의 발달

영아의 인지 및 동작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베일리 발달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 Bayley 영유아발달검사(Korean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II, K-BSID-II)는 박혜원·조복희·최호정(2003)이 미국판 BSID-II(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II)를 한국 아동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표준화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K-BSID-II는 1개월~41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적 발달, 언어발달,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그리고 정서발달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12

		아버지 빈도(%)	어머니 빈도(%)
학력	고졸 이하	16(14.5)	18(16.4)
	전문대 졸	23(20.9)	37(33.6)
	대졸이상	62(56.4)	55(50.0)
	대학원 이상	9(8.2)	-
직업	전문직	23(21.5)	2(1.8)
	사무직	44(41.1)	18(16.5)
	서비스직	39(36.4)	9(8.0)
	기타	1(0.9)	1(0.9)
	전업주부	-	79(72.5)
연령 ^a		33.85(3.55)	31.50(3.26)
월평균 소득 ^a		2,520,000(926,000)	
자녀의 성별	남아	51(45.9)	
	여아	60(54.1)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95(86.4)	
	둘째	14(12.7)	
	셋째 이하	1(.9)	

^aM(sd)

과 사회성 발달까지 측정하고 있는 검사로 인지 척도(Mental Scale), 동작 척도(Motor Scale), 행동평정척도(Behavior Rating Scale) 등 3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 중 인지척도와 동작척도를 사용하여 영아의 인지 발달과 동작발달로 이용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 측정을 위해서 조복희·정민자·김양은(200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sen과 Juhasz (1986)이 개발한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KCDI)를 번안하고,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에서 월령별로 적절한 문항을 선별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원 척도의 문항구성은 영아의 신체발달 6문항, 인지발달 6문항, 사회정서발달 6문항, 언어발달 6문항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영아의 월령에 맞추어 20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아동학 전공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양육참여는 아이 용품 구입, 습관 및 생활 지도, 습관 및 생활 지도, 놀아주기 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설문지는 아동학 전공자 3인이 설문구성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절차

주변인들로부터 소개받거나 인터넷의 임신·육아 관련 카페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이메일로 영아의 관련정보를 접수받았다. 영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전후 15일 이내에 베일리 영아 발달검사 스케줄을 잡아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영아개별검사를 실시하고,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일부 누락된 자료는 추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1) 영아 발달의 일반적 경향

<표 2>와 같이 연구대상 영아의 인지 지수는 최소 65점에서 최고 146점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은 101.8점이었다. 동작 지수는 최소 69점에서 최고 151점으로 평균은 103.8점을 보이고 있었다. 즉, 인지발달과 동작발달 모두 보통 수준이었으나 동작 지수가 인지 지수보다 근소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두 지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4, p<.05$).

영아의 성별이나 출생순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영아의 인지 지수와 동작 지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어머니 양육지식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각 영역별로 정답을 맞춘 문항 수 외에도 점수의 차이를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해 정답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평균 49%정도의 정답률을 나타냈으며, 영역별로는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식의 정답률이 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체발달 지식(56%)이었다. 인지발달 지식과 언어발달 지식의 정답률은 모두 40%정도로 낮았다. 또한 <표 4>와 같이 각 영역별 양육지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식이 신체발달 지식($r=.22, p<.05$)

및 인지발달 지식($r=.22, p<.05$)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이 밖의 영역별 양육지식들 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3) 아버지 양육참여의 일반적 경향

<표 5>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평균 3.72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양육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와 놀아주기가 평균 3.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생활지도($M=3.79$)와 수유, 식사 및 목욕($M=3.78$)이 유사하고, 아기 용품 구입이 가장 낮았다($M=3.40$). 또한 양육참여의 각 내용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1 \sim r=.87$)가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 어머

<표 3>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기술 통계

N=112

	신체발달 지식	정서 사회성발달 지식	인지발달 지식	언어발달 지식	전체
M(sd)	3.39 (.99)	3.11 (1.16)	1.21 (.69)	2.01 (.99)	2.43 (.51)
정답률(%)	56.5	62.2	40.3	40.2	48.6

<표 4>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영역별 상관관계

N=112

	신체발달 지식	정서 사회성발달 지식	인지발달 지식	언어발달 지식	전체
신체발달 지식	1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식	.22*	1			
인지발달 지식	-.09	.22*	1		
언어발달 지식	.18	.10	.04	1	
전체	.41**	.59**	.44**	.64**	1

* $p<.05$, ** $p<.001$

<표 5>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기술통계

N=112

	아이 용품 구입	생활 지도	수유, 식사 및 목욕	놀아주기	전체
M(sd)	3.40 (1.15)	3.79 (1.02)	3.78 (1.03)	3.89 (.94)	3.72 (.78)

<표 6>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역별 상관관계

N=112

	아이 용품 구입	생활지도	수유, 식사 및 목욕	놀아주기	전체
아기용품 구입	1				
생활 지도	.54**	1			
수유, 식사 및 목욕	.21*	.52**	1		
놀아주기	.29**	.59**	.49**	1	
전체	.70**	.87**	.72**	.76**	1

* $p<.05$, ** $p<.001$

<표 7>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일원변량분석

N=112

		평균(표준편차)	F
가정수입	200만원 이하	3.43(.90) a	3.04*
	200만원-400만원	3.58(.76) ab	
	400만원 이상	3.89(.73) b	

* p<.05

<표 8> 만 12개월 영아의 보육실태

N=110

	N(%)	
어머니 양육	75(68.5)	75(68.5)
혼합		
어머니+조부모	20(18.0)	16(14.4)
어머니+도우미		4(3.6)
타인양육		
조부모	15(13.5)	8(7.2)
도우미		4(3.6)
보육시설		3(2.7)
전체		110(100)

<표 9> 보육시설 이용 계획 연령의 기술통계

N=110

	M(sd)	Min	Max
보육시설 이용 계획 연령	32.87(13.91)	3	70

<표 10> 보육시설 이용 예정 연령의 빈도 및 백분율

N=110

	빈도	%	누적 %
이미 이용	3	2.7	2.7
13~18개월	16	14.5	17.2
19~24개월	19	17.2	34.4
25~36개월	37	33.6	68.0
만 3세	20	18.3	86.2
만 4세	12	10.9	97.6
만 5세	32	2.7	99.9
계	110	99.9	

니와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수입 200만 이하인 아버지(M=3.43)보다 400만원 이상인 아버지들(M=3.89)이 양육참여도가 높았다(F=3.04, p<.05).

2. 영아보육의 실태 및 계획과 이에 따른 영아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

1) 영아보육의 일반적 경향

(1) 보육실태

<표 8>과 같이 만 12개월 영아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양

육하는 경우가 대부분(68.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가 주양육자이면서 조부모나 도우미를 부양육자로 사용하는 유형이 18%였고, 이때 부양육자는 도우미가 14.4%이고 조부모는 3.6%이었다. 마지막으로 타인양육은 전체의 13.5%였고, 역시 조부모가 전적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7.2%, 도우미 3.6%, 보육시설 2.7%이었다.

(2) 보육 계획

또한 <표 9>와 같이 평균적으로 어머니들은 자녀가 약 33개월이 될 때부터 보육시설에 보낼 계획이었으며, 가장 일찍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는 생후 3개월부터이었고, 가장 늦게 보내겠다는 경우는 만 5세(70개월)이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겠다는 시기가 평균 33개월이라는 것은 유아기

<표 11> 보육시설 이용 예정 연령에 대한 계획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간의 상관관계

N=112

	아이 용품 구입	생활 지도	수유, 식사 및 목욕	놀이주기	전체
보육시설 이용 계획 연령	-.05	-.15	-.30**	-.08	-.19*

* p<.05, ** p<.001

<표 12>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영아의 발달과의 상관관계

N=112

	영아의 인지발달	영아의 동작발달	어머니 양육지식	아버지 양육참여
영아의 인지발달	1			
영아의 동작발달	.24*	1		
어머니 양육지식	.03	-.06	1	
아버지 양육참여	.20*	-.06	.11	1

* p<.05

(36개월) 진입 연령에 거의 육박하므로 영아기의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연령(월령) 등급을 나누고 누적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어머니의 1/3정도는 만 2세 전에 보육시설을 보내려고 하며, 86.2%의 어머니는 만 3세 이전에 보육시설에 보낼 계획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에 보육시설을 시작하겠다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며, 유아기(만 3세) 이후 보육시설을 보내려는 어머니는 소수(13.8%)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영아보육의 실태 및 계획에 따른 영아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

<표 11>과 같이 영아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연령, 학력, 직업)이나 현재의 보육실태 및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계획 등에 따라 영아의 인지 및 동작 발달이나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현재의 보육실태와는 관계가 없었으나 향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한 연령과는 관계가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특히 수유, 식사, 목욕 등에 많이 참여할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한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30, p<.001$).

3. 영아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간의 관계

<표 12>와 같이 영아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영아의 인지발달($r=.03$ n.s.) 및 동작발달($r=-.06$ n.s.)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동작발달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r=-.06$ n.s.) 영아의 인지발달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 p<.05$). 즉,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하는 영아일수록 인지발달 수준도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만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베일리검사를 실시하고,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설문 조사함으로써 영아의 인지 및 동작 발달이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아의 발달, 어머니의 양육지식,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각기 인구통계학적 변인 뿐 아니라 현재의 보육실태 및 향후 보육시설 이용 계획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견된 주요 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 만 12개월 영아들의 2/3 정도는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직접 양육되고 있었고, 약 20%의 영아들은 어머니에 의한 양육과 조부모나 도우미 등에 의한 타인 양육을 함께 제공받고 있었다. 전적으로 타인양육에 의존하는 영아는 13.5%였는데, 이 경우에도 조부모나 도우미 등 개별보육이 많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3사례, 2.7%)했다. 이상과 같은 6가지 보육 유형의 조합은 18개월~30개월 영아(13가지)를 대상으로 한 강기숙(2009)의 연구 결과에 비해 상당히 단순한 편인데, 이는 어머니들이 만 12개월까지는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된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만 12개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2.7%로 극히 저조한 결과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95%가 이 시기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선행연구(한유미, 2009)와 같은 맥락으로, 생애 첫 1년간의 집단보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86.2%의 어머니들이 적어도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만 3세) 이전에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만 12개월 이후 영아기의 집단보육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출생~만 36개월로 정의되는 영

아기 내에서 영아의 발달적 차이만큼이나 이들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와 선호도가 뚜렷이 다르므로 영아를 둔 부모를 위한 지원이나 보육정책을 계획할 때 영아의 연령 혹은 월령에 따른 차별화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만 12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신설이나 일반 보육시설의 영아반 증가보다는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 대상의 확대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정보육교사 파견 서비스, 육아휴직제도의 현실화 등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베일리 검사로 측정된 본 연구대상 만 12개월 영아의 인지 지수는 평균 101, 동작 지수는 평균 103으로 동작발달이 인지발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척도로 울산 지역 영아를 검사한 박혜원과 신민선(2006)의 연구결과보다는 다소 높고, 전국 영아를 검사한 조복희와 박혜원(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근소하게나마 연구대상 영아들이 인지 척도에서보다 동작 척도에서 수행이 높았던 것은 우리나라 영아들이 미국 영아들과 인지 발달은 유사하지만 동작 발달은 약간 빠름을 시사한다. 또한 인지 척도에는 언어적 반응이 강조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행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만 12개월 영아들이 미국 영아보다 약간 발달이 빠르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 표현이 낮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복희·박혜원, 2004).

영아들이 베일리 검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일관적인 수행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박혜원·신민선, 2006; 조복희·박혜원, 2004)와 유사하게 본 연구대상 영아들도 영아 자신 및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 인지 지수와 동작 지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영아의 보육상태에 따라서도 인지 발달과 동작 발달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영아의 발달은 향후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시기에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영아보육이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보육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베일리 검사 수행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는 어렵고, 역으로 부모는 영아의 발달이 평균보다 떨어질 경우 보육을 이용하기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쇄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영아의 발달이 늦는 경우 보육시설을 제공하려는 시기도 되도록 늦추고자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 연구 결과 이러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대상을 포함한 단기 종단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 12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평균 50%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신세대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비해 실제로 양육지식은 많지 않

나 핵가족 상황 하에서 친, 인척으로부터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양육지식 영역별로 볼 때 어머니들은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지식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체발달 지식이었으며, 인지발달이나 언어발달에 관한 지식은 이 두 영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이영환·오미연, 2006; 조복희·윤형주, 2004; 홍순옥·김성혜, 2009)와 유사한 결과로서 영아기 어머니들이 이 시기 주요 발달과업인 기본적 신뢰감이나 모자녀 애착 형성 등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영역별로 볼 때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경우 신체발달 지식과 인지발달 지식은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다른 영역의 지식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모든 발달영역에 대해 균일하게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획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어떠한 배경 변인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 순위 등의 변인과 양육지식간의 관계는 일관성이 없지만 대부분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이 양육지식도 높음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이근영 등, 2004; 이영환·오미연, 2006; 조복희·윤형주, 2004; 홍순옥·김성혜, 2009; Benasich & Brooks-Gunn, 1996)과 차이가 있다.

넷째, 연구대상 영아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양육 내용별로는 영아와 놀아주기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생활지도나 수유, 식사 및 목욕이었고, 아이 용품을 사다주는 일을 가장 덜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자녀와 놀아주기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이 과거보다 증가는 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보이고 양육보다는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며 실제 자녀를 돌보는 활동에 대한 참여는 낮은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장미나, 1994).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수재·이영환, 2007; 황순영 등, 2005)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소득만이 아버지 양육참여와 연관이 있었다. 즉, 소득이 낮은 아버지들보다 소득이 높은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도가 높았을 뿐이며 다른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현재 영아의 보육 상태와는 관련이 없었고, 향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려고 계획한 연령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현재 어머니의 양육을 보조하는 사람 또는 전적으로 영아를 길러주는 보육자의 존재와 관계없이 아버지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양육의 주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보육시설을 일찍 보낼 의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영아보육이 미진한 현실에서 어머니, 특히 맞벌이 어머니들의 양육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관계가 없었으나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경우 영아의 인지 발달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황순영 등, 2005), 성역할과 역할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최경순, 정현희, 1995; 정현희·최경순, 1995), 정서조절(임지윤 등, 2009), 또래수용도(황영미·문혁준, 2006) 등 주로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더하여 영아의 인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추후 좀 더 엄격한 실험연구를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힐 필요성이 있으나 적어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육경험은 적어도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이지는 않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질 높은 영아보육 또는 양육 지원 정책의 마련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기숙(2009). **Multiple child care** 유형과 영아 및 가족변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선애·한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5-64.

김영주·송연숙(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박혜원·신민선(2006).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수행의 안정성: 종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2)**, 103-112.

박혜원·조복희·최호정(2003).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 (K-BSID-2) 표준화연구: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21-134.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지(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가구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양안나(1990). **탁아경험 및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2005). 전국보육실태조사.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완정·현온강·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보육인지도가 아버지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1)**, 155-168.

연합뉴스(2009.04.07). 경기 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반대”.

윤형주·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이근영·장유경·임현정(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이선미·장정미(2009). 임신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51-273.

이수재·이영환(2007).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3)**, 1-17.

이숙현(2002).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교수, 의사를 중심으로. 가정과 문화, **13(1)**, 31-50.

임지윤·문동규·김영희(2009). 아버지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및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93-118.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계숙·박성미(1991). 어머니의 탁아경험, 아동양육지식 및 아동발달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 유아교육논총, **1**, 87-102.

정계숙·양안나(1991). 저소득층 아동의 탁아원 경험과 가정환경이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28(1)**, 145-160.

정현희·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 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조복희·박혜원(2004).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검사 (K-BSID-2) 표준화연구(1): 지역, 성별 및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K-BSID-2 수행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91-206.

조복희·정민자·김양은(2006). 영아기 첫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1)**, 89-109.

- 최경순·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한유미(2009). 보육바우처 도입의 과제. *아동과 권리*, **13(1)**, 33-56.
- 한유미(2010). 양육수당 도입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시설장의 인식. *아동학회지*, **31(2)**, 263-275.
- 황순영·정영숙·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황영미·문혁준(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4(2)**, 83-91.
- 홍순옥·김성혜(2008).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와 상호작용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55-71.
- Adams, G., Tout, K., & Zaslow, M.(2007). Early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patterns of use, quality, and potential policy implication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Belsky, J.(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Benasich, A. A. & Brooks-Gunn, J.(1996). Maternal attitude and knowledge of child rearing: Association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3)**, 1187-1205.
- Goodnow, J. J. (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Lamb, A. L. Brown, & B. Rogoff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 Hillsdale, NJ: Erlbaum.
- Grusec, J. E. & Goodnow, J. J.(2005).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 of view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 Larsenm, J. J. & McCreary-Juhasz, A.(1985). The effects if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maturity on adolescent attitudes toward parenting. *Adolescence*, **20(80)**, 823-839.
- Leaper, C.(2002). Parenting girls and boy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pp.189-226).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er, S.(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Wittmer, D. & Petersen, S.(2005). *Relationship-Based Curriculum for Infants and Toddlers*, New York: Prentice Hall.

접수일 : 2010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27일